



조광래 전 축구 대표팀 감독 '폭탄발언' “선수 선발 외압 있었다”

“협회 수뇌부 추천... 타협 거부하자 협조 안해”

조광래(57)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대한 축구협회 수뇌부로부터 선수 선발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전 감독은 26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표팀 감독이 외부 바람에 흔들린다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며 “부끄러운 한국 축구의 자화상이지만 (선수 선발에) 외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전격 경질된 조 전 감독은 후임인 최강희 감독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고 폭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감독에 따르면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레바논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축구협회 수뇌부 세 명이 선수 추천을 해 왔다고 한다. 그는 “공교롭게도 세 명이 똑같은 선수를 지목하며 대표팀에 발탁했으면 하는 뜻을 전했다. 상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나 또

한 차마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감독은 “당시 협회가 추천한 선수를 뽑아주면 그만 아니었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원칙과 소신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다”며 “한 명을 넣어주면 두 명, 세 명이 왜든 할 말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조 전 감독은 “당시 그 선수 선발을 놓고 코치들과 논의하고 소속팀 감독과도 상의했지만 모두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아직 아니다’였다”며 “대표 선수로 뛰기에는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는 평가였다. 그런 상황에서 외압과 타협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축구협회에서 대표팀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비협조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감독은 “중동 원정 2연전에 앞서 기술위원회에 레바논과 쿠웨이트 경기의 분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협회에서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당시에는 압박한 경기 준비가 급했기 때문에 더 요구하지 않았지만 레바논과 쿠웨이트의 전력 분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중동 2연전을 앞두고 경기 누적과 부상에 대비해 기존 23명에서 2명을 더한 25명으로 선수단을 꾸리자고 했지만 협회가 거부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조 전 감독은 황보관 기술위원에게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는 “대표 선수 선발은 경기력과 컨디션, 전술 이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황보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협회 수뇌부에서 그 선수를 추천할 때 황보 위원장도 옆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대표팀 지휘봉을 새롭게 잡은 최강희 감독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성공한 대표팀 사령탑이 되려면 협회 수뇌부가 전폭적인 힘을 실어줘야 하고, 외압에 흔들려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 칼을 받아라”

26일 전북 남원충훈체육관에서 열린 2011 전국남녀에페오픈펜싱선수권대회. 여자부 표신희(앞 모습)와 최효주가 날렵한 자세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동계훈련·킹스컵 명단 발표

광주 FC 김동섭 등 25명 선발

1월 6일 일본 전지훈련

광주 FC 김동섭, 경남 FC 윤빛가람, 세레소 오사카 김보경이 올림피아 축구 대표팀의 동계훈련에 참가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일본 전지훈련과 컵대회 출전에 동행할 선수 25명의 명단을 26일 발표했다. 최근까지 올림피아 팀에서 활동한 국내 프로축구, 대학리그, 일본 프로축구 선수들이 거의 모두 포함됐다. 성인 대표팀을 오간 홍정호, 윤빛가람, 서정진 등도 합류하고 일본에서 뛰는 김보경, 조영철, 정우영, 한국영, 정동호 등도 가세하기로 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다음 달 5일 광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 소집돼 훈련에 들어간다. 대표팀은 휴관을 피해 6일 일본 오기나와로 출국해 11일까지 전지훈련을 치르고 태국으로 건너가 킹스컵대회에 출전한다. 킹스컵에서는 내달 15일 태국, 18일 덴마크, 21일 노르웨이와 차례로 맞붙는다. 대표팀은 킹스컵을 통해 실전 감각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카타르, 사



우디아라비아, 오만과 함께 A조에 편성된 한국은 2승1무(승점 7)로 선수를 달리고 있다. 대표팀은 내년 2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정 3차전, 같은 달 22일 오만과 원정 4차전, 3월 14일 카타르와 마지막 홈 6차전 등 3경기를 남겨뒀다. 주 1위에 오르면 올림피아 본선에 직행한다.

◇올림피아 동계훈련자 명단

▲GK = 김승규(울산) 이병영(부산) 하강진(성남) ▲DF = 김기희(대구) 김영권(오미야) 오재석(강원) 윤석영(전남) 장현수(연세대) 정동호(가이나레돗토리) 홍정호(제주) 황도연(전남) ▲MF = 김민우(사간도스) 김보경(세레소 오사카) 김대환(서울) 박종우(부산) 백성동(연세대) 서정진(전북) 윤빛가람(경남) 윤일록(경남) 정우영(교토상가) 조영철(오미야) 한국영(쇼난벨마레) ▲FW = 김동섭(광주) 김현성(대구) 박용지(중앙대) /연합뉴스

고교야구 일본에 역전패

오심 논란 속 2-6

한국 고교야구 대표팀이 '난적' 일본을 넘지 못했다. 이정훈 전남 북일고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5일 대만 타이베이 신주양구장에서 열린 2011 한국·일본·대만 고교야구대회 2차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2-6으로 패했다. 전날 대만 가오수 선발팀을 상대로 4-2의 승리를 거뒀던 한국의 전적은 1승1패가 됐다. 선취점은 한국이 가져왔다. 1회초 2사에서 3번타자 강승호(북일고)가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에 성공한 뒤 4번타자 이우성(대전고)의 3루타에 홈을 밟았다. 하지만 이어진 1회말 선발 김성민(상원고)이 세 타자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1-1이 동점이 됐다.

2회말 아쉬운 오심이 나왔다. 2사에서 세 키구치 다카요시의 투수 앞 땅볼 때 공을 건네받은 1루수가 베이스를 먼저 밟았지만 세이프가 선언됐다. 일본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1-2. 5회말 유격수 실책으로 맞은 2사 1·2루의 위기에서 한국이 윤형배(북일고)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2루타와 폭투로 2점을 헌납했다. 7회에도 실책과 폭투가 이어지면서 점수는 1-6까지 벌어졌다. 한국은 9회말 1사3루에서 5번 지명타자 윤대영(진흥고)의 외야플라이로 1점을 보냈지만 추가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2-6으로 고개를 숙였다. 전날 경기에서 나홀로 3타점을 쓸어 담았던 윤대영은 대회 4번째 타점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군사훈련 마치고 미국으로



4주간 군사훈련을 끝낸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29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2010년 광주우 아시안게임에 야구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건 추신수는 지난달 21일 부산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미국 애리조나 자택으로 돌아가는 추신수는 개인 훈련을 하며 내년 3월 시작되는 스프링캠프를 준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추신수는 올 봄에 음주운전 파문으로 슬럼프에 빠진 상황에서 잦은 부상에 시달려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최근 클리블랜드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선수로 추신수를 꼽았다. /연합뉴스

학강초등학교장배 야구 전국 9개 팀 우승 도전

내달 9~12일 학강초서

제2회 학강초등학교장배(교장 이기성) 야구대회가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학강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 학강초를 비롯해 시흥 소재초, 원주 일산초, 경기 신도초, 용인 수지구 리틀야구단, 안산 삼일초, 군산 신풍초, 인천 창영초, 인천 동막초 등 9개 팀이 참가해 우승에

도전한다. 조별리그로 치러지는 대회는 9일 오전 9시30분 소재초와 신풍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며 대회 결승전은 12일 오후 1시에 열린다. 한편 6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던 초대회에서는 최태영 감독이 이끄는 학강초가 정상에 올랐고, 인천 동막초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일일인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극연테나,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너, 허부언더코팅, 자동차경비일체, 빗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비뒹방울, 천장방울, HID램프, LED램프,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수입타이어,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전국 최저가 판매, 국내 최대 500평 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임동 자동차터리 중간사거리(20번길) 임동 자동차터리 중간사거리(20번길)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 RV 5인기준 7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펄싱 펌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펄싱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